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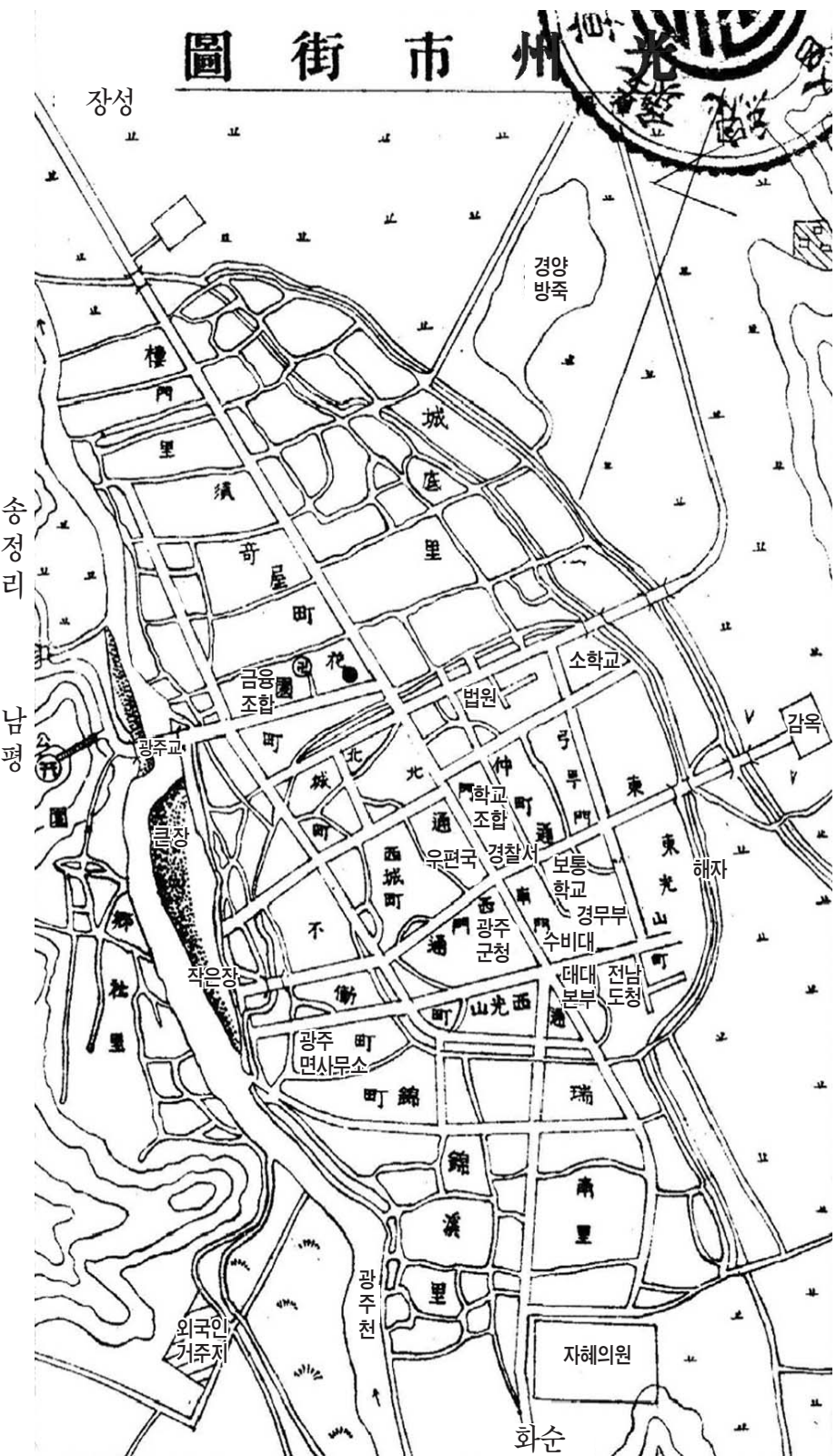
# 서민 삶터 천변 따라 도로·공원 잇따라 개발

## 국가기록원과 함께하는 남도 근대화 탐사



〈광주면〉

### 10. 광주전 옛모습 그리고 변화의 시작



1917년 발간된 광주지방사정에 수록된 1916년 당시 광주시지도. 고대와 중세에 이르기까지 광주전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직선은 도로, 구불구불한 것은 물길이다. 광주전과 광주읍성 해자, 경양방죽, 서방천 등의 물길이 광주시까지 곳곳에 흐르고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 광주의 물길을 형성했던 핵심자원은 경양방죽과 광주전이었다. 특히 광주의 중심을 관통하는 광주전은 도시를 남북으로 나뉘었으며 그 주변 둔치는 시장, 휴양지, 가족 방목지, 문화행사공간 등으로 쓰였던 '모두의' 장소였다. 또 곳곳에 전라도 말로 쓰, 즉 높낮이가 있었으며 아이들의 수영장이자 놀이공간이었고, 아낙네에겐 빨래터, 성인 남성들에게는 낚시터가 돼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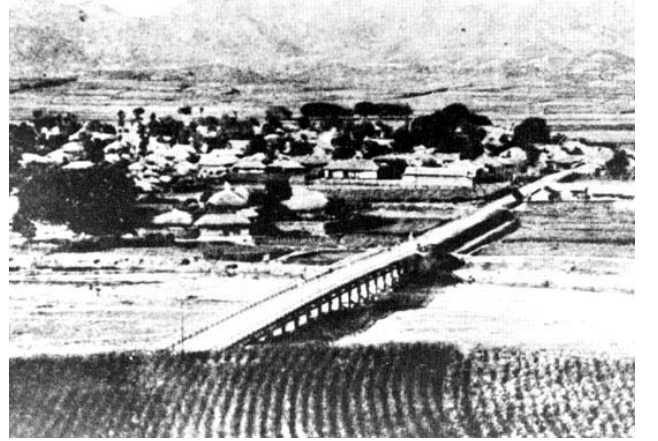
근대화 이전 광주전의 좌안과 우안의 교류는 거의 없었으며, 다리도 징검다리 정도가 있었을 것이다. 우안, 다시 말해 광주읍성을 중심으로 하는 시가지는 애초 충장로에서 금남로로, 다시 경양방죽 인근으로 서서히 넓어지고 있다. 우안과 좌안의 교류가 늘어나고 좌안의 '가치'가 높아진 것은 광주교를 비롯한 광주전 교량들이 들어선 뒤다. 1897년 목포항의 개항과 함께 광주에 진출한 미국인 선교사들이 일제강점기 이들의 간섭에서 벗어나 오랜 기간 선교할 수 있었던 것은 비교적 관심이 덜한 광주전 좌안인 양림동에 자리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광주전은 조탄강이라고도 했고, 옛 적십자병원 인근의 조탄보라는 보의 명칭은 여기서 유래했다. 광주전은 과거 여러 개의 물길로 나뉘어 시가지가 굽이굽이 통과했고, 따라서 하천 둔치의 폭은 지금의 5배 넘는 100m에 이르는 곳이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1917년 발간된 광주지방사정이라는 책자에 기재된 도면에서 찾아볼 수 있

7455원, 직물류 3238원, 기타 잡품 1만4634원 등 모두 14만9802원의 매출을 올렸다. 같은 해 선암시(2만3528원), 비아시(1만8581원), 작은 장(1만6432원), 용산시(3563원), 임곡시(1736원) 등의 매출과 1914년 광주면의 세입예산액(1만7264원) 등을 감안할 때 큰 장은 광주 경제를 움직였던 핵심 동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제가 이처럼 시장의 거래규모를 꼼꼼히 파악한 이유는 바로 시장세를 걷기 위함이었다. 1916년 광주면이 이들 시장에서 거둬들인 세금은 1565원으로, 전체 세입의 10% 이상을 차지했다. 이 시장은 1919년 3·1 만세운동의 중심 장소가 되기도 했다. 하루 최대 유동인구가 오갔던 이 광주전 큰 장에서 일제에 저항해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퍼져나갔던 것이다. 우연일 수도 있었지만 이는 시장의 운명을 바꿔놓았다.

1921년 조선신문은 광주면의 '대광주계획 협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놓는데, 여기서 일제는 광주면이 해결해야 할 3대 문제로 도로 개설 등 시구개정, 대도시장 병치 정리, 하수시설 설치 등이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이 없어진 자리에는 일본군 연병장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다. 다시 말해 독립운동의 진앙지에 이를 진압했던 군 시설을 밀어넣으려 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바로 현실이 되지 못했다. 큰 예산이 수반되는데다 지역민의 반발도 있었고, 이들 시장을 합쳐 새로운 시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1909년으로 추정되는 광주교와 광주시가지 경관.



구강공원(광주공원) 내 광장에 일본인들이 조성한 광주신사.

## 시민 빨래터·휴양지·장터 등 다양한 삶의 공간 제공

## 역사·문화·경제 중심지로 도심 형성·발전에 큰 영향

다. 광주전은 지금의 동구 금동·학동, 남구 방림동·양림동, 서구 양동 등을 파고들어가면서 하천과 하천 사이에 드넓은 들판을 만들어냈고 여기서 지역민들은 낚시를 하거나 멍을 잡고, 가족을 방목했으며, 자연스레 형성된 시장에서 상품을 거래했다. 명절에는 즐다리기, 불놀이, 농악놀이의 장소가 됐고 좋은 풍경으로 주변에는 석서정, 양파정 등의 정자들이 들어섰다.

광주전 둔치에는 호남 최대의 시장인 큰 장(광주교 인근)과 작은 장(부동교 인근)이 있어 사람들로 북적였다. 일본인들은 목포에서 나주 남평을 거쳐 광주교를 지나 광주읍성으로 들어섰고, 이 광주전이 바라보이는 성거산에 광주 최초의 근대 공원인 구강공원(광주공원)을 조성해 신사를 두기도 했다. 따라서 1910년대까지만 해도 광주전은 수백 년 이상 간직했던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국가기록원의 자료를 근거로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광주전 둔치나 그 주변에 자리한 시설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시장이 있었다. 1915년 '전라남도 통계요람'에는 시가지인 광주면에는 큰 장과 작은 장이, 그 외 광주군에는 선암시, 비아시, 임곡시, 용산시 등이 있었다고 적고 있다. 이들 시장의 개시일은 72일씩, 각각 개장일이 달랐다. 예를 들어 큰 장은 2·7일, 선암시는 3·8일, 비아시는 1·6일 등에 장이 열렸다.

큰 시장의 거래 규모는 단연 호남 최대였으며, 1915년에만 농산물 10만6559원, 축산물 1만7916원, 수산물

일본 개발업체와 일본인 면장과의 비리도 드러나는 등 우려곡절을 겪었기 때문이다. 이 새로운 시장, '사정시장'은 1930년 비로소 문을 열었다.

지금으로부터 115년 전인 1907년 들어선 광주교는 징검다리라 영성하게 만든 나무다리가 고작이었던 당시 페인트칠이 된 최신식 목교였다. 도로 경목선(경성~목포)의 목포~광주구간이 준공되기 전 일본인들은 선박편으로 목포에서 영산포까지 와 말이나 마차, 도보로 나주 남평을 거쳐 광주공원 옆에 설치된 이 다리를 거쳐 광주의 심장에 다가갔을 것이다. 광주교는 이후 1922년, 1935년 두 차례의 재가설을 통해 콘크리트 다리가 됐다. 광주교는 1927년 광주면의 하천정리사업(1926~1928년) 도중에 들어서 광주교를 보완하게 된다.

구강공원(광주공원)은 1912년~1913년 9600평의 성거산 정상에 조성됐으며, 광장에는 1200평의 광주신사가 있었다. 매년 봄이면 빛깔이 장관을 이루고 이로 인해 '그 귀한' 전등 설치가 추진됐으며, 1925년에는 자동차 도로가 설치되기도 했다. 그만큼 엄청난 인파가 찾았다는 것이다. 그 옆 기념공원(사적공원)은 1924년 일본 태자의 결혼식을 기념해 조성됐으며, 당시 일제는 구강공원을 구 공원, 기념공원을 신 공원이라고 불렀다. 기념공원에는 우리 민족이 대대로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올렸던 사직단이 있었던 곳이다. 1937년 기록에 의하면 구강공원과 기념공원의 면적은 각각 745ha, 308ha였다. /윤현석기자 chadol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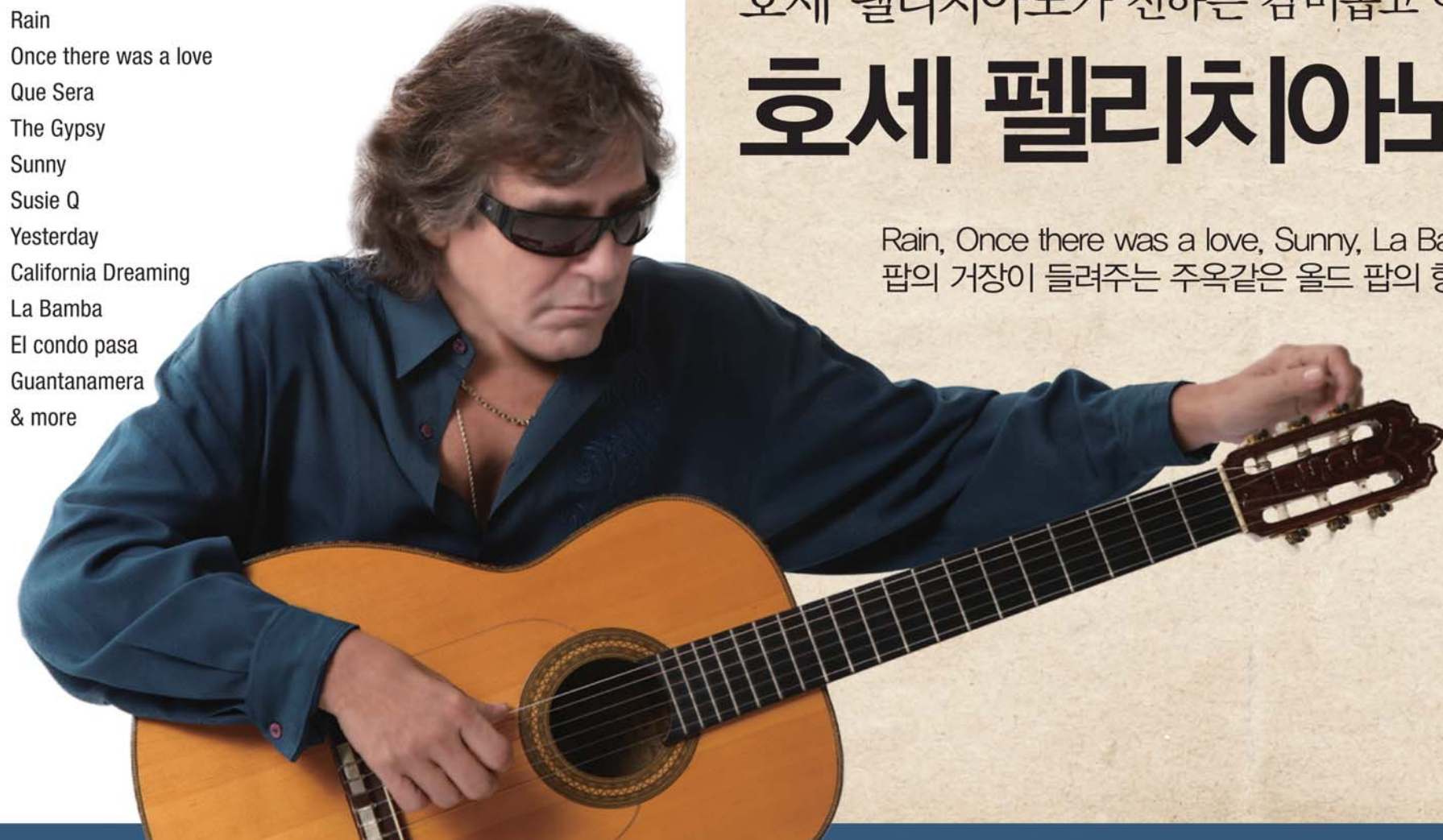


광주교 인근에 자연적으로 조성된 호남 최대 시장인 큰 장. 이곳에서 1919년 3·1 만세운동이 벌어졌다.

▲도움말 주신 분  
노경수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이봉수 동강대 건축과 교수, 윤희철 국가기록원 직원  
▲이 기사는 국가기록원·광주시·전라남도의 지원으로 작성됐습니다.

광주 CBS 50주년 기념 1961-2012

- Rain
- Once there was a love
- Que Sera
- The Gypsy
- Sunny
- Susie Q
- Yesterday
- California Dreaming
- La Bamba
- El condo pasa
- Guantanamera
- & more



# 팝의 전설을 만나다! 그라미 어워드 8회 수상에 빛나는 호세 펠리치아노가 전하는 감미롭고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 호세 펠리치아노 내한공연

Rain, Once there was a love, Sunny, La Bamba 등 팝의 거장이 들려주는 주옥같은 올드 팝의 향연

JOSE FELICIANO Live in Gwangju

일시 : 2012. 9.11(화) 오후 7시 30분

장소 : 광주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주최 : 광주 CBS JOY 커뮤니케이션

티켓 : 인터파크, 티켓링크, 광주CBS(062-376-4488) VIP석 120,000원 R석 100,000원 S석 80,000원